

여성개발원 전국 3百여곳 현황조사

전국적으로 2천2백여 개에 이르는 여성단체는 대부분 연간 총예산이 1억원 이하인데 정부의 재정지원마저 일부 특정단체에만 편중되어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여성단체들의 사업내용도 각단체가 서로 유사한 주제로 사업을 중복 실시하거나 전지효과적인 일회성 행사위주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단체의 개별적인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원장 金胤德)이 최근 발간한 「여성단체지원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3백3개 단체(202명, 지방2백10)를 대상으로 여성단체연합회를 조사한 결과 단체의 재정상태(89개 단체만 응답)는 연예산 1천만~5천만원(46.1%)이 가장 많았고 1천만원 미만(21.3%), 5천만~1억원(15.7%), 1억~10억원(15.7%), 10억~100억원(1.7%) 순으로 나타났다. 연예산 83.1%가 연예산 1억원 미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1억원 이상을 사용하는 단체 중 33.3%는 연예산 6.7%에 지나지 않아, 영세성을 띠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재정원천은 회비 정부보조금 전후원금 기부금 수익사업이었는데 이중 대

여성단체 재정난... 會費의존 88%

부분의 단체(87.6%)가 재정을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열악한 재정현



여성단체의 단체와 사업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전국여성대회가 해마다 열린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예산의 영세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으로 인해 산하조직을 두는 단체(72.6%) 중 67%를 지칭하는 경우는 절반 정도였다.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부처의 재정지원현황을 보면 모두 8개부처에서 10억원

원의 예산으로 17개 단체만을 편중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청미안회와 대한YWCA연맹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4개 단체가 1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립목적으로는 사회

年예산 5千萬원미만 67% 차지
정부지원 특정단체에 편중심해
비슷한 主題 행사위주사업등 지양해야

권인식장을 위해 설립된 단체가 많았다.

여성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복지사업으로 3백3개 단

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사업(72.3%), 사회봉사사업(44.6%), 각종행사(37.9%), 정보출판 조사연구(29.7%) 등이었다.

이와관련 여성개발원 金胤德원장은 「여성단체현황을 살펴볼때 그 조직과 재정에서 단체간의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대다수의 여성단체가 1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회원확보나 예산 규모 자산 등에 있어 열악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金원장은 이어 여성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성권익옹호를 적극 사회운동차원에서 추진할수 있는 일원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개발원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여성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유사단체들끼리의 발전적 통합 △지나치게 회원중심적 단체활동을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구사한 주제의 사업에서 벗어나 단체별도 특장점이 있고 전문적인 활동과 사회문제해결 프로그램 개발하며 △단체활동 활성화를 저해하는 재정지원사업들을 늘리고 각종 기금이나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金眞敬기자〉